나라마다 고유한 성풍속과 성문화

고전적 이론 바탕으로 민족·종교·주제별 각론 탐구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의 관점에서 성(性)의 문제를 조명하는 고전적 저작들 가운데 최근들어서는 인도, 중국, 로마, 그리스, 일본 등 각 나라마다 고유한 성 풍속과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다수 출간되고 있어 이채를 띤다. 이와 함께 동양학 전문출판사로 알려진 동문선(대표 신성대)은 「침실의 문화사」「창부」「카마 수트라」「성과 결혼의 민족학」 등 에로티즘 연구서를 아예 '문예신서'의 중요한 장르로 정하는 등 새로운 주제와 각도에서 본 성문화 연구서들이 최근 다수 선보이고 있다.

주류를 이뤘던 고전적 연구흐름

「풍속의 역사」「성과 권력」「성의 정치학」「성의 역사」 등으로 대표되는 성관련 인문학 저작들의 연구경향은 크게 몇가지 흐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번째 흐름은 '정신분석학'과 '사회과학'의 만남이다. 프로이드가 리비도의 성적 충동을 말한 이후로 마르쿠제에 이르기까지의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정신분석학에서의 성적 충동과 사회과학의 권력구조 분석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성이해다. 이들은 '성억압'이 주요한 사회관계의 권력구조를 반영하며 이러한 "억압을 강요하는 사회적 동기는 경제적 동기"라는 점을 주장한다. 마르쿠제는 '성의 상품화' 역시 또하나의 억압이라고 본다. 「풍속의 역사」로 유명한 푹스도 이러한 입장에서 인간의 내면과 사회구조를 동시에 규명하고 성풍속의 변천을 생산양식의 변동과 연계시켜 보고 있다.

두번째 흐름은 '철학'과 '문화사'의 만남이다. 이러한 흐름은 문화비평이라는 현대적 방법을 동원하여 신화와 소설 등 문학이나 철학 사상 속에서 드러나는 성의 문제와 동서양의 문화사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성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성의 정치학」의 케이트 밀레트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간관계로서의 사랑 또는 본능적 관계로 신비화되어 온 성관계와 성행위가 사실은 남녀의 지배·종속관계이며 권력관계라고 주장한다. 푸코는 권력론을 문화비평적 시각에서 선구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성의 역사」에서 푸코는 결국 현대의 대표적인 지배장치는 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성이란 "권력을 실어나르는 모세혈관"이라는 선언은 데카르트 이래의 서구적인 이성적 인간관을 전면적으로 뒤집어엎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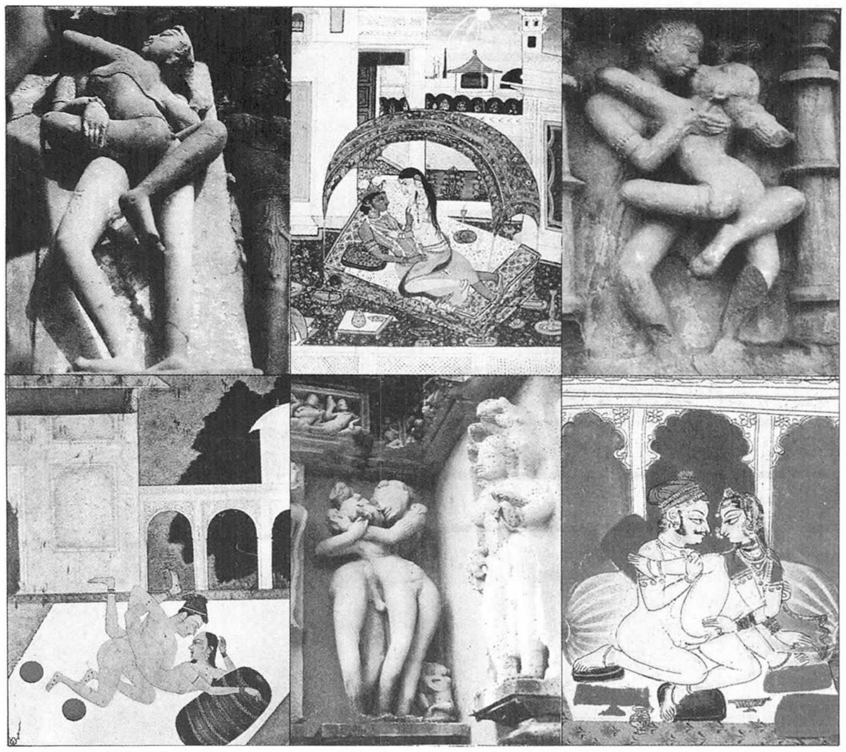
세번째 흐름은 '마르크스주의'와 '문화인류학'의 만남이다. 이러한 흐름은 마르크스주의가 역사유물론의 형성에서부터 모건의 「고대사회」 등 문화인류학의 영향을 받았음에 착안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주의 내에서 소홀히 해온 문화학 관련분야의 연구방법론을 반성하고 좀더 역동적으로 사회문화를 해석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나라가 다르면 성풍습도 다르다?"

최근 주류를 이루는 에로티시즘 관련 저작들은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본 각 나라의 성풍습들이다. 문화적으로 큰 특징이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별 성풍속의 유사점과 차이점, 특징을 소개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예문서원 편집장 이홍용씨는 "성 이론은 한 나라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포착한다"고 지적한다. 출간되고 있는 책은 거개가 번역서다. 대체적인 것은 고대가 현대보다 성에 훨씬 자유로웠고, 성문화가 다양할수록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다는 것. 대표적인 곳이 그리스다.

「그리스 성풍속사」(한스 리히트, 산수야)는 성과 연관된 그리스인들의 생활모습과 도덕관을 다룬 책이다. 현실적인 사랑을 추구한 그리스인에게 아내 외의 여자를 거느리거나 어린 소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현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동성애, 소년·소녀에 대한 육체적 사랑과 매춘 등에 자유스러웠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매춘부와의 사이에서 니고마코스를 낳았을 때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이를 말해준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나체를 매우 즐겼다는 얘기도 이 책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것은 성욕 때문이 아니라 육체가 지니는 아름다움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녀가 함께 나체 차림으로 각종 경기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저자는 그리스인들의 에로틱하고도 노골적인 나체 풍습이 어떻게 찬란한 그리스 문화의 원동력이 되었는지를 밝혀보인다.

「중국인의 성」(강효원 중국과학원 상해천문대 부연구원, 예문서원)은 문화학 분야, 특히 민속학, 신화학, 종교학 등의 연구토대 위에 서 있다. 이 책 역시 성을 이불 속의 개인적인 일이 아닌 하나의 중요한 문화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성이 중국 전통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 또 성규범과 사회발전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유학이 성에 대해 취한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남녀 대방에 관한 예교'(男女大防之禮敎)가 중국 전통사회에서 흥성하고 쇠퇴한 경위 등을 탐구하고 있다.



「카마 수트라」(본문 중).

「인도인의 성」(W.D.오프레호르티)은 고대 인도인들이 지녔던 성의식이 신화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인도인들의 다양한 희생제(犧牲祭) 의식에 나타나는 소나 말 등의 동물들이 그들의 성의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핀다. 신화에서 성적 비유와 동물적 상징을 사용하는 목적은 남성과 여성, 남신과 여신, 그리고 인간과 신들의 관계에 대한 종교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성에 대한 인도인의 자세는 궁극적으로는 요가와 같은 종교적 수행으로 귀결된다. 신화나 제식에서의 성에 대한 도덕성 강조는 결국 성을 자연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인도인들의 철학적 추구와 깊은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성」(근간예정, 예문서원) 또한 일본인들의 성관념을 추적한 책이다. '하나의 성기구가 밝히는 역사' '성은 일종의 노동력이라는 발상' '처녀의식은 외래 사상' 등 시대에 따라 성의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종교의식에 배어 있는 성, 성관계에서의 남녀 차이, 일본의 특징 등을 다룬다.

동문선에서 펴낸 「카마 수트라」는 나라가 아니라 특정 종교의 성의식을 다뤘다. 기원전 6세기경 바라문의 성현·학자들이 논술한 경전을 모태로 하여 대략 3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서 편찬한 「카마 수트라」는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성애행위의 훈도"를 위해 씌어졌다. 인도에서는 고대로부터 성이란 인생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고대 인도의 사회·종교에서 성애는 늘 성성(聖性)이며, 그 쾌락은 신들의 사랑으로 찬미되었고 환영받아야 할 행위라고 이 경전에는 적혀 있다.

보다 다양한 주제로 본격 연구돼야

동문선의 신성대씨는 "현대사회는 더이상 에로티시즘을 외면하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상품 하나에도 성적인 터치가 없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지나치다' '그렇지 않다' 등 쓸데없는 논쟁·감정의 소모가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편견에 차서 바라보고, 터부시하여 외면해온 것이 이런 현상을 낳은 것이다. 학술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제, 다양한 각도에서 에로티시즘은 진지하게 연구·분석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옥 기자